

제 93회 목포시의회 회의록

1. 개 의 : 단기 4292년 3월 12일 상오 10시 25분
2. 폐 의 : 단기 4292년 3월 12일 하오 1시 45분
3. 장 소 : 목포시의회 의사당
4. 사 회 : 의장 김 삼 성
5. 출석의원 : 재직 16명 중 출석의원 12명
결석 천철수, 박두순, 김창희, 김남진 의원
6. 출석공무원 : 시장 하동현
부시장 이병규 및 각과장 (건설과장제외)

7. 의사일정

◆ 보고사항

- (1) 제 92회 제 2, 3, 4차 회의록 통과
- (2) 각 진정서 왕복사항 보고
- (3) 감사장 전달 상황
- (4) 목포 나주간 상수도선로 관리 유지에 관한 약정사항 보고
- (5) 아동결핵 병원 유치추진상황 보고

◆ 부의안건

- (1) 목포시세 조례중 일부 개정의 건
- (2) 목포시 소방세 조례중 일부 개정의 건

8. 토의사항

◎ 제 92회 제 2차 회의록 통과

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

◎ 제 92회 제 3차 회의록 통과

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

◎ 제 92회 제 4차 회의록 통과

서기 박찬대 낭독 이의 없음으로 통과

◎ 각 진정서 왕복 사항 보고

◇서기 박 찬 대

- 교통부 부흥부 해무청 등에 진정한 조복 사항의 보고가 있었음.

◎ 감사장 전달 상황보고

◇서기 박 찬 대

- 현주교에게 증정한 감사장 전달 상황 보고가 있었음.

◎ 목포 나주간 상수도선로 관리 유지에 관한 약정사항 보고

◇하 시장

- 도지사주재로 개최된 관계 읍면장간 회의 상황보고가 있었음.

◎ 아동 결핵병원 유치 추진상황 보고

◇강 영 락 의원

- 본 건 추진상황 보고가 있었음.

◇의장 김 상 섭

- 부의안건 상정을 선언 하다.

◎ 목포시세조례 중 개정안

◎ 목포시 소방세 조례 중 개정안

◇서기 박 찬 대

- 제안 이유를 설명하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양 건 공히 전문 위원회에 회부심의케한 후 금일중으로 의결토록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집행부 전과장을 출석시켜 시정전반에 공하여 질의를 전개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상수도 공사 추진의 애로를 타개하기위하여 재목언론인들이 선봉을 서서 2회에 공하여 나주읍까지 래왕함으로서 원만한 해결을 가져오게한데 대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며 대집행부 질의로

- 1) 의회계을 신설할 용의는 없는가
- 2) 지방자치법 개정책자를 구득할 방도는 없는가
- 3) 금춘의 유달산록 녹화 대책여하
- 4) 우육상 전 업체가 휴점 이유여하
- 5) 노동자와 기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시장으로서의 권한의 한계 여하
- 6) 부두 노동자의 행패가 극심한데 대한 대책 여하
- 7) 5인이상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고용상황을 아는가
- 8) 최근에 사회과내에서 모 폐병환자가 음독 자살을 기도하였다는데 그 진상 여하
- 9) 토지 취득세 납부 해당자의 동정세 부과 상황 여하
- 10) 모일간 신문 지상에 목포는 암흑가라고 평한 구절도 있거니와 가로등을 증설할 용의는 없는가
- 11) 시내소재 각 공장은 기백톤씩의 급수를 하는데 반하여 학교측에 급수시설을 안해준 이유여하

12) 기류부의 경신을 안해준 이유여하

◇강 영 락 의원

- 김성균 의원의 질문도 있거니와 시내 각 식육업자가 국제첨가소화를 이유로 동맹 휴업을 하고 있다는바 이에 미치는 시민의 영양 보급의 악 영향 등을 고려하여본 일이 있는가

◇정 응 표 의원

- 목포역전 광장이 우계(우기)가 되면 홍수사태가 되는데 이의 배수 구멍을 크게 늘림으로서 물빠지는데 용이하게 만들 용의는 없는가

◇김 일 섭 의원 긴급동의

- 당시의 교통사정은 형언할 수 없는 불편한 위치에 노여있는바 그 예를 들어 대반동서 사범학교까지 통학하는 학생들은 무려 1시간이상을 도보하여야 등교하게 되는 시정이오니 시내 버스의 설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바 이튼차 모업자가 본건 설치원을 관계 당국에 제출할 모양이니 당 의회의 결의로써 교통부 장관에게 조속허가 건의를 제출토록 할 것을 긴급 동의하다.

◇강 영 락 의원

- 김일섭 의원의 동의 골자는 납득되는 바이나 당시는 타시와 같은 시가지 계획이 안되어 있는 관계로 시내 버스를 설치함으로써 이에 미치는 교통사고등 악영향을 염려안할 수 없는바 본 건을 관장한 관계관서나 시민의 여론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간적 여유를 갖도록 일응 보류함이 좋을 것 같다.

- 김 성 균, 김 상 대 의원 찬성 발언하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본 건에 대하여 당시와 비등한 위치에 있는 마산시는 시영으로 시내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그 설치를 절실히 요청하는 바이다. 본 건을 일응보류하드라도 이에 대한 연구위원을 결정하여 제반사정을 검토토록 함이 좋을 것 같다. 이의 연구위원으로 김일섭, 김성균, 강영락 의원을 지명하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오전 회의 휴회를 선언하다. (상오 11시 45분)

- 하오 회의 속개를 선언하다. (하오 1시)

◎ 내무분과 위원회 회의 상황보고

◇김 일 섭 의원

- 부의안건 1항 목포시세조례 개정안과 2항 목포시 소방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보았습니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양 건 상정을 선언하다.

◎ 목포시세 조례 중 일부개정안

◎ 목포시 소방세 조례 중 일부 개정안

◇정 응 표 의원

- 양 건 공히 원안 무수정 통과 할 것을 동의하여 재청에 이어 삼청이 있어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.

◎ 집행부 측 답변

◇하 시장

- 의회계 신설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계의 신설은 한정된 TO의 범위내에서 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려면 타의1계를 없애야 되는 것이며 아직껏 시정계에서 의회사무를 관장하여 별다른 과오가 없어서 그대로 두었으나 의원각위의 요청이시라면 고려하여 보겠습니다.

◇장 총무과장 답변

- 1) 지방 자치법 개정된 책자는 그 개정 조문만을 발췌하여 등사 배부하여 드리겠습니다.

- 2) 식육상에 대한 국채첨가 소화문제는 현재는 시에서 그 증권 취급을 아니하고 은행에 이관하였습니다. 만은 재무부령으로 제정된 제증명 발급시 즉 도살허가 시의 소정 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다면 그 행정책임자가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므로 불가 부득이한 것입니다.

◇김 산업과장 답변

- 1) 유달산 녹화 문제는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15도 경사지인 해지점의 녹화추진이란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. 만은 도의 협조로 식수한 아가시아 15만본이 좋은결과로써 성육하고 있으며 금년 춘계에도 식수할 계획입니다.

- 2) 시내 식육상 휴업문제는 알고있으나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채첨가소화는 시의 자의로써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.

◇박 재무과장 답변

- 1) 토지 취득세 납부자에 대한 동정세 부과는 각기 경작면적을 봐서 소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.

- 2) 호별세 부과후의 납세의무자 이동은 대개 소액납부자가 많은바 이러한 부분은 수시 조사하고 있으며 시외 이동자는 관계 시 읍 면장에게 위촉하여 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.

◇장 총무과장 답변 (건설과 소관)

- 1) 배수지구역내의 녹화 문제는 금춘에도 플라타나스 오백본을 주문하여 사범학교 뒷산에 식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.

- 2) 가로등 증설 문제는 금년 예산에 계상된 10등으로써 지극히 필요한 장소에 증설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3) 역전광장 배수혈(구멍) 문제는 조사하였던바 잘 빠지도록 되어있습니다.

- 4) 시내 각 학교수도시설문제는 해방 후 신설된 유달중학교와 사범부속 학교등인데 이러한 곳에 수도를 시설하게되면 시내 각지의 배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고로 현재의 실정으로는 부득이 한 것입니다.

◇박 사회과장 답변

- 1) 노동법에 보장된 시장의 권한 한계는 문서의 진달 관계 등입니다.
- 2) 5인이상의 고용원을 가진 기업체를 말씀하시나 10인 이상의 수용처가 71개소 있습니다.
- 3) 부두노동자의 행패 문제는 관계당국의 신중한 단속으로써 종전보다는 시정되었다고 보아지며 현재는 노총자제에서도 이 방면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나 행정당국의 힘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형편이오니 시내 각계각층의 협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.
- 4) 사회과내의 자살미수 사건은 거3월 3일 상오 11시경 30세 가량의 극도로 쇠약한 청년이 래시하여 병원에 입원 가료하여줄 것을 요청하기로 현재의 시의료 시설로서는 본인의 요구대로는 안되것기에 응급치료라도 하도록 주선하였으나 본 인이 거부하고 식사제공도 거절하며 그 순간 차 곱부에 무슨약을 타 먹었는데 본인이 말하기를 쥐약을 먹었어도 안죽는다고 신음하는 것을 목격하여 이에 당황하고 적십자 병원에 옮겨 응급 치료를 가하였으나 본 인은 원래 폐결핵 만성환자로서 그 생명을 도저히 구하기 어려운 형편인자로서 적십자 병원 당사자들도 머리를 흔들지경이었으나 신신 부탁하여 치료를 애걸하여 두었든바 거 3월 7일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.

◇정 호 병 과장 답변

- 기류부 신조문제는 그 사무적으로 동적부 정비가 우선 급한 형편으로서 복잡다단한 실정이나 현금 그 준비단계에 있으니 단 시일 내에 정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◇김 성 균 의원

- 가로등 신설문제에 있어서 예산 면에 계상된 10등의 증설만을 말하나 다른 예산을 절약하여서라도 변방동의 요소에 많은 가로등을 증치하여 주도록 각 별 유의하여주기 바라는 바이다.

◇의장 김 삼 성

- 폐회를 선언하다. (하오 1시 45분 현재)

위 회의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이 서명 날인함.

단기 4292년 3월 13일

시의원 김 성 균

시의원 임 석 희

작성자 서기 주 도 식